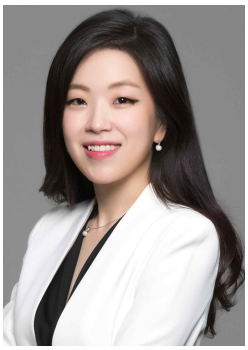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 http://cafe.daum.net/naraeyoujin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7 국가직 9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비타에듀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숭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워크북+필기노트.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 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2017 국가직 9급

문 1. 다음 시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 龜何龜何
> 首其現也
> 若不現也
> 燔灼而喫也
>
> – 「구지가」 –

① 조건 – 요구 – 위협 – 환기
② 위협 – 조건 – 환기 – 요구
③ 환기 – 요구 – 조건 – 위협
④ 요구 – 위협 – 환기 – 조건

☆ 정답: ③ – 독해(문학)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198쪽]
[나래국어 법률저널 칼럼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1화]
☆ 정답 해설:
신적 존재인 '거북'을 부르고(환기), '머리(우두머리)'를 달라 기원(요구)한 뒤에 조건절을 활용하여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면(조건) 구워 먹겠다(위협)고 하였다.
[현대어풀이]
거북아 거북아 (환기)
머리를 내어라 (요구)
내어 놓지 않으면, (조건)
구워서 먹으리. (위협)

갈 래 ▶ 집단 무가(巫歌), 주술가(呪術歌), 노동요, 4구체 한역 시가
표 현 ▶ 위협과 협박, 직설적 표현, 명령 어법
특 징 ▶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집단 무요(舞謠)
주 제 ▶ 임금(수로왕)의 강림 기원
작 가 ▶ 구간(九干) – 가야국이 형성 전 김해 지역을 다스리던 9명의 우두머리
배경설화 ▶ 가야국이 형성되기 전에 구간(9명의 우두머리)이 후한 지역의 백성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구지봉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이 봉우리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하늘로부터 대왕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두드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알 여섯 개가 내려왔고 그 중 가장 큰 알에서 수로왕이 나왔다. 이 노래가 바로 '구지가'이다.

2017 국가직 9급

문 2. 화자의 처지나 행위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 샛강 바닥 썩은 물에 / 달이 뜨는구나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①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 지는 강변에 나와 삽을 씻는다.
② 화자는 강물에 슬픔을 퍼다 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
③ 화자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④ 화자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304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퍼 모의고사 유사유형 1-(1)-4']
☆ 정답 해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삶의 비애와 좌절감을 표현하려 하였다. '슬픔도 퍼다 버린다'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 노동자의 씁쓸한 심정과 울분이 드러나 있다. 또한, 해질녘 강물을 바라보는 노동자를 화자로 삼아,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흐르는 물'과 '샛강 바닥 썩은 물에 뜨는 달'에 대응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4행] 하루의 노동을 마치며 인생과도 같은 강물에 슬픔을 씻고 싶어 함.
[5~8행]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해 무력감을 느낌.
[9~12행]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강물에 비친 달을 봄.
[13~16행] 가난이 지배하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을 수용함.

2017 국가직 9급

문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전국 시대 말,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조나라 혜문왕은 동생인 평원군을 초나라에 보내어 구원군을 청하기로 했다. 이십 명의 수행원이 필요한 평원군은 그의 삼천여 식객 중에서 십구 명은 쉽게 뽑았으나, 나머지 한 명을 뽑지 못한 채 고심했다. 이때에 모수라는 식객이 나섰다. 평원군은 어이없어하며 자신의 집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었다. 모수가 삼 년이 되었다고 대답하자 평원군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법인데, 모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모수는 "나리께서 이제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머니 속에 넣어 주신다면 끝뿐이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만족한 평원군은 모수를 수행원으로 뽑았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모수가 활약한 덕분에 국빈으로 환대받고, 구원군도 얻을 수 있었다.

① 吳越同舟 ② 囊中之錐 ③ 馬耳東風 ④ 近墨者黑

☆ 정답: ② - 어휘(한자성어) - 문맥 추론
[나래국어 이유진 저절로 어휘한자 5편 속담과 성어]
☆ 정답 해설:
囊中之錐(주머니 낭, 가운데 중, 갈지, 송곳 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 유사성어 - 모수자천(毛遂自薦):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것.
☆ 오답 해설:
① 吳越同舟(성씨 오, 넘을 월, 한가지 동, 배 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
③ 馬耳東風(말 마, 귀 이, 동녘 동, 바람 풍):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
④ 近墨者黑(가까울 근, 먹 묵, 놈 자, 검을 흑):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

2017 국가직 9급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 "무겁죠?"
>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 "댁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중에서 -

① 백화는 처음에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기를 싫어했으나, 영달이의 등에 업힌 이후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 보인다.
② 영달이는 '대전에서의 옥자'를, 어린애처럼 생각이 깊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등에 업힌 백화는 영달이가 '옥자'를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④ '눈 덮인 길의 고랑'은 백화가 신음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335-336쪽]
☆ 정답 해설:
영달은 어린애처럼 가벼운 '백화'를 업으며 '대전의 옥자'를 떠올린다. '어린애처럼'이 의미하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지 생각이 깊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백화'와 '옥자'의 공통점은 '쇠약'하다는 점이다.

작품 해설 ▶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된 떠돌이 노동자와 술집 작부를 등장시켜 하층민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삼포'는 가공의 지명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된 삶을 벗어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포도 이미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잃었음을 통해 원초적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시 점 ▶ 전지적 작가 시점
배 경 ▶ 시간적 배경 : 1970년대 초반
공간적 배경 : 김천역 및 그 주변
주 제 ▶ 산업화로 인한 민중들의 궁핍한 삶,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민중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정과 연대 의식

2017 국가직 9급

문 5.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고장 난 시계를 고치다.

① 부엌을 입식으로 고치다.
② 상호를 순 우리말로 고치다.
③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④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법을 고치다.

☆ 정답: ③ - 어휘(고유어) - 문맥적 의미
[나래국어 이유진 독해알고리즘 문맥 추론 224-225]
☆ 정답 해설:
<보기>와 ③의 고치다는 [1] 「1」의 의미이다.
고치다 「동사」
[1] 【…을】
「1」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
「2」 병 따위를 낫게 하다.
「3」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4」 모양이나 내용 따위를 바꾸다.
「5」 처지를 바꾸다.
[2] 【…을 …으로】
「1」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2」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 오답 해설:
① [2] 「1」 본디의 것을 손질하여 다른 것이 되게 하다.
②④ [2] 「2」 이름, 제도 따위를 바꾸다.

2017 국가직 9급

문 6.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 - 최일남, 「노새 두 마리」 중에서 -

①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②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가벼운 데가 있다.

☆ 정답: ① - 어휘(고유어) - 사전적 의미
[나래국어 이유진 저절로 어휘한자 2편 고유어 63쪽 오답 선지]
☆ 정답 해설:
시망스럽다(형용사):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 오답 해설:
② 활발하다: 생기 있고 힘차며 시원스럽다.
③ 산만하다: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④ 잔망스럽다: 보기에 태도나 행동이 자질구레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2017 국가직 9급

문 7. 밑줄 친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것은?

① 강행군 ② 강기침 ③ 강타자 ④ 강염기

☆ 정답: ② - 어휘(접사) - 고유어 접사와 한자 접사

[나래국어 이유진 저절로 어휘한자 2편 고유어 85쪽]

[나래국어 이유진 메일테스트 어휘편]

☆ 정답 해설:

강- 「접사」

「1」((몇몇 명사 앞에 붙어))'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굴/강술/강참숯/강풀.

「2」((몇몇 명사 앞에 붙어))'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기침**/강더위/강모.

「3」((몇몇 명사 앞에 붙어))'억지스러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울음/강호령.

☆ 오답 해설:

강-(強) 「접사」((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매우 센' 또는 '호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강염기**/강추위/**강타자**/**강행군**

2017 국가직 9급

문 8.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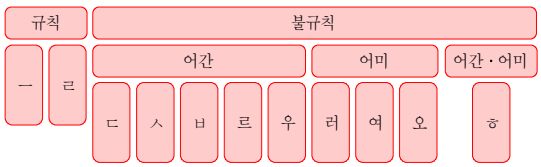
① 무를 강판에 가니 즙이 나온다. (기본형 : 갈다)
② 오래되어 불은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 : 불다)
③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 : 이르다)
④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기본형 : 들르다)

☆ 정답: ② - 이론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106쪽]

[나래국어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31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3주 (1)회, (2)회 용언의 활용]



☆ 정답 해설:

'(국수가)불은'의 기본형은 '분다'이다. 'ㄷ' 불규칙 용언이므로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활용된 것이다.

분다 - 분고 - 분는 - 불어 - 불었다

☆ 오답 해설:

① '갈다'는 'ㄹ' 규칙 활용에 의해, 어미의 첫소리 'ㄴ, ㅂ, ㅅ' 및 '-오, -ㄹ'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가니, 가는, 갑니다, 가시오, 가오' 등으로 활용한다.

③ '(~에게)이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에 의해, 모음 어미 앞에서 '르'가 'ㄹ르'로 바뀌어 '일러, 일렀고, 일렀다' 등으로 활용된다.

* 到(동사) : '러' 불규칙 예 목적지/결론에 이르다. ⇨ 이르러

* 早(형용사) : '르' 불규칙 예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 ⇨ 첫눈이 일러

④ '들르다'는 'ㅡ' 규칙 활용에 의해, '들러, 들러서, 들렀다'로 활용한다.

2017 국가직 9급

문 9. 다음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 일주일에 한 번쯤 돼지고기를 반 근, 혹은 반의 반 근 사러 가는 푸줏간이었다. 어머니는 돈을 들려 보내며 매양 같은 주의를 잊지 않았다.
>
> 적게 주거든, 애라고 조금 주느냐고 말해라, 그리고 또 비계는 말고 살로 주세요, 해라.
>
> 푸줏간에서는 한쪽 볼에 힘껏 쥐어질린 듯 여문 밤톨만한 혹이 달리고 그 혹부리에, 상기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ㅡ들리고 있는 듯 길게 뻗힌 수염을 기른 홀아비 중국인이 고기를 팔았다.
>
> 애라고 조금 주세요?
>
> 키가 작아 발돋움질로 간신히 진열대에 턱을 올려놓고 돈을 밀어 넣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
> 고기를 자르기 위해 벽에 매단 가죽 끈에 칼을 문질러 날을 세우던 중국인은 미처 무슨 말인지 몰라 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비계는 말고 살로 달래라 하던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허겁지겁 내쏘았다.
>
> 고기로 달래요.
>
> 중국인은 꾸룩꾸룩 웃으며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덥석 베어 내었다.
>
> 왜 고기만 주니, 털도 주고 가죽도 주지.
>
>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중에서 –

① 어머니의 주의에 대한 '나'의 수용
②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③ 시간적 배경의 특성과 공간적 배경의 역할
④ '나'의 말에 대해 푸줏간의 '중국인'이 보여 주는 정서

☆ 정답: ③ - 독해(문학)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일주일에 한 번쯤 고기를 사러 간다는 내용만 제시되었을 뿐,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푸줏간'이라는 공간보다 '중국인'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다.

갈 래 ▶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전후 소설
배 경 ▶ 6·25 직후의 항구 도시 인천의 중국인 거리
시 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 제 ▶ 한 소녀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과 그 고통

☆ 오답 해설:

① 주인공은 중국인이 고기를 자르기도 전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애라고 조금 주세요? ~ 나는 총알처럼 내뱉었다.',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하기 전 중국인이 고기를 자를까봐 ~ 고기로 달래요.'

② 어머니는 푸줏간 주인을 믿지 못하여 어린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적게 주거든 ~ 살로 주세요, 해라.'

④ 고기도 자르기 전에 조금 주냐고 따지니 영문을 몰라 뚱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고기로 달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서야 의심 깊은 어른이 시킨 말인 줄 알고 웃고 있다.

2017 국가직 9급

문 10.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로 나타낸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한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
> 그러면 말과 생각이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말과 생각이 서로 달라붙은 쌍둥이한테 한 놈은 생각이 되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다른 한 놈은 말이 되어 사람 귀에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생각이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이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는 생각이다.
>
> 이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앞의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틀렸다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말로 나타낼 수 있지만, 누구든지 가슴 속에 응어리진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애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말과 생각이 서로 안팎을 이루는 쌍둥이가 아님은 쉽게 판명된다.
>
>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가능한 한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① 말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다.
② 말은 생각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③ 말과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④ 말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내용 확인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17-18쪽 언어와 사고]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유사 지문 3-(1)-6']

☆ 정답 해설:
마지막 문단에 '말을 통하지 않고는 생각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오답 해설:
① 뒤의 두 문단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넓고 큰 것이며 말이란 결국 생각의 일부분을 주워 담는 작은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1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 '말'을 통해 '생각'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마지막에 '생각과 말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017 국가직 9급

문 11.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
>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①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생달'은 모두 차가운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②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나비의 의지 부족과 방관적 태도를 비판한다.
③ '흰나비'는 '바다'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④ '청(靑)무우밭'은 '바다'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291쪽]

☆ 정답 해설:
이 작품에서 '나비'는 너무 순수한 나머지 '바다(현실)'를 '청무우밭(이상)'으로 착각하여 시련을 겪는 대상이다. 즉, 무모한 도전을 하고 현실에 부딪혀 시련을 겪는 존재이므로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방관적이라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주지적, 감각적, 상징적
주 제 ▶ 꿈의 좌절과 냉혹한 현실 인식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

[1연]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순진한 나비**
[2연] **바다로 날아가다 지쳐서 돌아온 나비**
[3연]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

☆ 오답 해설:
①④ '청무우밭'의 파란색이 '나비의 이상'을 의미한다면, '삼월(三月)달 바다'와 '새파란 초승달'의 파란색은 '시리다'라는 촉각적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차가운 느낌을 주고 '나비의 시련'을 의미하게 된다.
③ 1연에 '나비'가 '수심'을 몰랐다는 내용이, 2연에 '나비'가 '바다'를 '청무우밭'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2017 국가직 9급

문 12.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리는 소설 양식을 세태 소설이라 한다. 세태 소설은 당대 사회의 모순이나 부조리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그 대표적인 소설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있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어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중에서 –

① ㉠: 세태의 단면이 드러나는 공간적 배경이다.

② ㉡: 적극성을 지닌 존재들로 서술자의 예찬 대상이다.

③ ㉢: '무거운 한숨'을 유발하는 부조리한 현실로 서술자의 비판 대상이다.

④ ㉣: 서술자가 '금광열'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한 대상이나 공간이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350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유사 지문 1주 2회 9번 지문]
☆ 정답 해설:
주인공인 '구보'는 무기력한 지식인인 자신보다 '금광 브로커(㉡)'가 더 '진실한 인생'일지 모른다고 했지만,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책이지 그들에 대한 예찬이라 볼 수 없다. '구보'가 '황금광 시대'를 생각하며 무거운 한숨을 쉰다는 서술을 통해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 한 서술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갈 래 ▶ 모더니즘 소설, 세태 소설
성 격 ▶ 관찰적, 사색적, 자전적
배 경 ▶ 일제 강점기의 서울
시 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 제 ▶ 1930년대 무기력한 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일상사와 내면세계

* 2016년 9월 고2 학력평가에 제시된 <보기>와 동일한 지문이었음.

☆ 오답 해설:
① 금광 브로커 같은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인 '개찰구'는 식민지 조선의 세태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③ '구보'가 '황금광 시대'를 생각하며 무거운 한숨을 쉰다는 서술을 통해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려 한 서술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정답해설과 동일)
④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2017 국가직 9급

문 13. ㉠~㉣에 대한 풀이로 옳지 않는 것은?

빌기를 다 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황천인들 무심할까. 단상의 오색구름이 사면에 옹위하고 산중에 ㉠백발 신령이 일제히 하강하여 정결케 지은 제물 모두 다 흠향한다.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 빌기를 다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운(五雲)이 영롱하고, 일원(一員) 선관(仙官)이 청룡(靑龍)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다스리던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無道)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걸로 함심(含心)하야 ㉢백옥루 잔치시에 익성과 대전(對戰)한 후로 상제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愛恤)하옵소서."하고 타고 온 청룡을 오운 간(五雲間)에 방송(放送)하여 왈,

"㉣일후 풍진(風塵) 중에 너를 다시 찾으리라."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거늘 놀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 황홀하다.

정신을 진정하야 정언주부를 청입(請入)하야 몽사를 설화(說話)한대 정언주부가 즐거운 마음 비할 데 없어 부인을 위로하야 춘정(春情)을 부쳐 두고 생남(生男)하기를 만심 고대하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 있어 십 삭이 찬 연후에 옥동자를 탄생할 제, 방 안에 향취 있고 문 밖에 서기(瑞氣)가 뻗질러 생광(生光)은 만지(滿池)하고 서채(瑞彩)는 충천하였다.

…(중략)…

이 때에 조정에 두 신하가 있으니 하나는 도총대장 정한담이요, 또 하나는 병부상서 최일귀라. 본대 천상 익성으로 자미원 대장성과 백옥루 잔치에 대전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적강(謫降)하여 대명국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지라 본시 천상지인(天上之人)으로 지략이 유여하고 술법이 신묘한 중에 금산사 옥관도사를 데려다가 별당에 거처하게 하고 술법을 배웠으니 만부부당지용(萬夫不當之勇)이 있고 백만군중대장지재(百萬軍中大將之才)라 벼슬이 일품이요 포악이 무쌍이라 일상 마음이 천자를 도모코자 하되 다만 정언주부인 유심의 직간을 꺼려하고 또한 퇴재상(退宰相) 강희주의 상소를 꺼려 주저한지 오래라.

– 「유충렬전」 중에서 –

① ㉠: 길조(吉兆)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 '부인'이 꾼 꿈의 상황이다.

③ ㉢: '선관'이 인간 세상에 귀양을 오게 되는 계기이다.

④ ㉣: '남악산 신령'이 후일 청룡을 타고 천상 세계로 복귀할 것임을 암시한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나래국어 이유진 우월한 독해 259쪽]
☆ 정답 해설:
청룡과 다시 만나자며 인사를 나눈 것은 청룡을 다스리던 신관(충렬)이다. '남악산 신령'은 신관(충렬)의 말 속에 언급된 존재로, 하늘에서 죄를 얻어 내려온 그를 부인에게 인도하였다.

갈 래 ▶ 조선조 후기 국문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
성 격 ▶ 영웅의 일대기, 비현실적, 우연적
배 경 ▶ 중국 명나라
시 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 제 ▶ 집안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유충렬 영웅적 행적과 일대기

☆ 오답 해설:
① ㉠ 바로 뒤에 '길조(吉兆)가 여차(如此)하니 귀자(貴子)가 없을쏘냐.'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를 통해 아기를 원하던 부인이 태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하늘에서 '익성'과 싸워 '인간(속세)'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 국가직 9급

문 14. ㉠~㉣의 한자가 모두 바르게 표기된 것은?

<보기>
글의 진술 방식에는 ㉠설명, ㉡묘사, ㉢서사, ㉣논증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	㉡	㉢	㉣
①	說明	猫鴦	徐事	論證
②	說明	猫鴦	徐事	論症
③	設明	描寫	敍事	論症
④	說明	描寫	敍事	論證

☆ 정답: ④ - 어휘(한자) - 표기
[나래국어 이유진 독해알고리즘 논지 전개 방식 - 선지 개념어]
☆ 정답 해설:
㉠ 說明(말씀 설, 밝을 명): 일정한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풀어 밝힘, 또는 그 말
㉡ 描寫(그릴 묘, 베낄 사):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냄
㉢ 敍事(펼 서, 일 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 論證(논할 논, 증거 증): 사물의 이치를 증거를 들어 증명 또는 설명하는 것
☆ 오답 해설:
設明(베풀 설, 밝을 명)이란 단어는 없다.
猫鴦(고양이 묘, 문절망둑 사): <동물> [같은 말] 괭이상어
徐事(천천히 할 서, 일 사): 태봉(泰封) 광평성(廣評省)의 둘째 관직
論症(논할 논, 증세 증): 병의 증세를 논술함

2017 국가직 9급

문 15. 밑줄 친 부분이 어문 규정에 맞는 것은?

① 병이 씻은 듯이 낳았다.
② 넉넉치 못한 선물이나 받아 주세요.
③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갔다.
④ 옷가지를 이여서 밧줄처럼 만들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형태에 관한 것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137-139쪽]
[나래국어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111-112쪽, 118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3주 (1)회, (2회)]

☆ 정답 해설:
'잠그다'는 '으'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모음 어미와 만나면 '잠가, 잠가서, 잠갔다'로 활용되는 것이 옳다. '잠궈, 잠궈서, 잠궜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오답 해설:
① '낳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낫다'이다. '낫다'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하여 '나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한글맞춤법 제40항) 그러나 '넉넉하다'는 어근 부분 '넉넉'의 마지막 소리가 안울림소리 'ㄱ'이므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 든다. 따라서 '넉넉지 못한'으로 고쳐야 한다.
④ '잇다'는 'ㅅ' 불규칙 활용을 하여 모음 어미 '-어서'와 만나면 '이어서'로 활용된다. 'ㅣ' 모음 순행동화로 인해 [이여서]로 발음이 나더라도 '이어서'라 적는다.

2017 국가직 9급

문 16. 훈민정음의 28 자모(字母) 체계에 들지 않는 것은?

① ㆆ ② ㅿ ③ ㅠ ④ ㅱ

☆ 정답: ④ - 이론문법 - 고전문법 - 제자원리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372쪽]
[나래국어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81-82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4주 (1)회]
☆ 정답 해설:
훈민정음 28자모(字母) 체계: 초성 17자 + 중성 11자

- 초성 17자

오음(五音)	기본자(基本字)	가획자(加畫字)	이체자(異體字)
아음(牙音)	ㄱ	ㅋ	ㆁ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ㅈ, ㅊ	ㅿ
후음(喉音)	ㅇ	ㆆ, ㅎ	

- 중성 11자

상형 원리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하늘의 둥근 모양	ㆍ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땅의 평편한 모양	ㅡ		
사람이 서 있는 모양	ㅣ		

훈민정음 28 자모 체계에 순경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순경음 'ㅱ'은 문자의 운용법상 연서법(連書)에 해당하는 글자이다.
* 연서(連書)(니ㅓ쓰기): 순음 'ㅁ, ㅂ, ㅍ, ㅃ'과 설음 'ㄹ' 아래 후음 'ㅇ'을 상하로 결합하는 방법으로 순경음과 반설경음이 있다. 이 중에서 반설경음 'ㆋ'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음이며, 순경음 중에서 'ㅱ, ㆄ, ㅸ'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만 사용되었고, 'ㅹ'만이 순수 국어 표기에 사용되었으나 ≪동국정운(東國正韻)≫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성 체계에서 제외되었다.
* 초성 23체계에는 전탁음(ㄲ, ㄸ, ㅃ, ㅆ, ㅉ, ㆅ)가 추가된다.

2017 국가직 9급

문 1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② 친구가 도착한 지 두 시간만에 떠났다.
③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④ 한밤중에 전화가 왔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158-159쪽, 166쪽]
[나래국어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132쪽, 134쪽, 137쪽]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유사유형 3주 (1)회, (2회)]
☆ 정답 해설:

중(中)	너희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냐? (여럿 가운데) 근무 중, 수업 중, 회의 중 (무엇을 하는 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무의식중, 부재중, 은연중'(합성어), '한밤중'(파생어)

☆ 오답 해설 :
①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의 의미로는 동사 '안되다'를 쓴다. '잘되다(좋게 이루어지다)'의 반대 의미이며, 붙여 쓴다. '안∨되다'는 금지나 실패의 의미를 가진다.

안되다	동사	1.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 잘되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되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안되다	형용사	1.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예 혼자 보내기가 안돼서 역까지 배웅했다. 2. 얼굴이 많이 상하다. 예 안색이 안돼 보여서 보약을 지어 보냈다.

* 안∨되다: 예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합격이 안∨되다.

②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만'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만	조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③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ㄹ뿐더러'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뿐	조사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한정)
	의존 명사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 말이 없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 * 어미 : '(어간)~ㄹ뿐더러', '~다뿐이겠니?' ('그 이상')

2017 국가직 9급

문 18. 독음이 모두 바른 것은?

① 探險(탐험) – 矛盾(모순) – 貨幣(화폐)
② 詐欺(사기) – 惹起(야기) – 灼熱(치열)
③ 荊棘(형자) – 破綻(파탄) – 洞察(통찰)
④ 箴言(잠언) – 惡寒(악한) – 奢侈(사치)

☆ 정답: ① – 어휘(한자) – 독음
[나래국어 이유진 저절로 어휘한자 6편 한자어 독음에 주의 항목]
[2017 이유진 국가직 일타이피 모의고사 유사유형 4주 (1)회]
☆ 정답 해설:
探險(찾을 탐, 험할 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矛盾(창 모, 방패 순): '창과 방패'라는 뜻,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貨幣(재물 화, 화폐 폐): 상품 교환의 매개체로서, 지불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 또는 축적의 목적물로서 사회에 유통되는 금화·은화·동화·지폐 따위.
☆ 오답 해설:
② 詐欺(속일 사, 속일 기): 꾀로 남을 속임
惹起(이끌 야, 일어날 기): 무슨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灼熱(불사를 작, 더울 열): ① 새빨갛게 불에 닮
② 찌는 듯이 몹시 더움을 형용하는 말
③ 荊棘(가시나무 형, 가시 극): ① 나무의 가시
② 고난의 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破綻(깨뜨릴 파, 터질 탄): ① 찢어지고 터짐
② 일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중도에서 그릇됨
洞察(밝을 통, 살필 찰): 환히 내다봄
④ 箴言(경계 잠, 말씀 언): ①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②구약성서의 한 편, 솔로몬왕의 훈언
惡寒(미워할 오, 찰 한): 몸에 열이 나면서 오슬오슬 춥고 괴로운 증세
참고) 惡(미워할오, 악할 악)
奢侈(사치할 사, 사치할 치):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씀

2017 국가직 9급

문 19.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ㄴ, ㅁ, ㅇ'은 유음이다.
②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③ 'ㅡ, ㅢ,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④ 'ㄱ, ㅚ,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 정답: ① – 이론문법 – 음운론 – 자모 체계
[나래국어 이유진 알기 쉬운 문법 38쪽]
[나래국어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쪽]

–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 정답 해설:
'ㄴ, ㅁ, ㅇ'은 비강을 울려 발음하는 비음이다. 유음은 'ㄹ'이다.
☆ 오답 해설:
②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보다 마찰음이 적어, 'ㅅ, ㅆ, ㅎ'만이 마찰음이다.
③ 'ㅡ, ㅢ, ㅏ'는 혀의 최고점이 뒤로 치우친 후설 모음이다.
④ 'ㄱ, ㅚ, ㅗ, ㅜ'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2017 국가직 9급

문 20. 내용의 전개에 따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照明)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거기서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是非)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라)–(나)–(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배열
[나래국어 이유진 독해알고리즘 배열 유형]
☆ 정답 해설: 남부에서 무료 해설 강의를 꼭 참고!
(가) 도입 –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이 없다.
(나)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이것 또한 저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은 저 혜시(惠施)가 말하는 방생(方生)의 설이다.
(라) <그러나> 그, 즉 혜시(惠施)도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역시 ~ 하는 셈이 된다.
(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런 상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 커다란 긍정에 의존한다. ~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